

## 유권자 '뒷전' 공천 '올인'

민주 광주·전남 단체장 경선 혼탁...재심 요구 빗발·비방 대자보·고소·고발 난무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간 비방과 흑색선전도 도를 넘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배제에 따른 재심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일부 경선지역에서는 후보자 비방 대자보가 나붙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탓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유권자는 뒷전인 채 당내 경선 통과에만 '올인'하고 있는 탓이다.

이미 아름다운 경선을 뜻하는 '윙팁 경선'은 실종됐고, '공천=당선'이라는 오만함이 겹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관련자들까지 경선 후보로 이름을 올려 논란을 사고 있다. 자칫 수사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공약 선거는 사라지고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권리는 무시한 채 공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광주 컷오프 반발 잇따라=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컷오프(경선후보배제)를 둘러싸고 임우진 서구청장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일부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읍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2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임 구청장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만장일치로 추천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도 중앙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원천 배제했다"면서 "지역민과 당원의 후보 선택권과 결정권을 빼앗는 폭력이지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투쟁 해온 60여 년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컷오프 관련 재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김금림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경선 컷오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임한필 전 광산문화경제연구소 소장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어떤 범죄 경력, 음주 운전, 선거법 위반, 탈당 이력, 경선 불복, 당적 변경도 없는 제가 컷오프된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또 광산구청장에 도전했던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자신의 컷오프에 반발,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다음달 3~4일 최종 후보를 가려낼 예정이다.

◇전남 경선 혼탁 극에 달해=#1. 지난 20일 밤 10시20분께 순천시 삼산동 한 대학교 앞. A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5곳에 나붙었다. 대자보에는 "장사꾼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예비후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 비밀리에 뇌물을 받아 정역을 살았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후보 측은 이 대자보가 '○○○'이라는 이름의 삼행시로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특정후보 지지자의 행위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전남선관위는 합평군수 예비후보인 B씨를 수사의뢰했다. 고발한 C씨가 B씨 명의로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22일 현재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103건에 달한다. 이 중 고발이 20건, 경고가 83건이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17건(고발 2, 경고 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진 16건(고발 4, 경고 12), 전남지사 10건(고발 5, 경고 5), 목포와 장성이 각각 6건(경고)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이 29건, 기부행위 26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허위사실 공표 13건, 여론조사 10건, 문자메시지 7건, 시설물 5건, 공무원 선거 개입 2건, 집회 1건 등이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인쇄물이 가장 많다"며 "특정후보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언론이 유착되면서 갈등과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되나

정부, 오늘까지 현장 실사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서 제외했던 목포와 영암지역에 대한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류정수 부경대 교수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등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이틀간 목포와 영암을 방문, 현지 실태를 파악한다. 영암 대불산단 등 조선업체 근로자, 지역경제 단체 관계자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하고 대불산단 현황을 찾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 6곳을

발표했지만 목포와 영암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놓인 목포와 영암지역이 제외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광주일보 4월10일자 1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 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노동자 혜택이 확대되고, 사업주 역시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보형 지원금과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영암 대불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8323명에서 2017년 12월 5594명으로 고용수준이 48.8% 급감했고, 조선업종만 보더라도 2008년 조선 호황기 대비해 올해는 57%나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 지역으로 꼽힌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선 업체, 실직자 지원은 물론 대체 산업 육성 지원과 아사상태의 목포와 영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대한조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65%가 목포에 살고 있어 사실상 목포와 영암은 동일 경제권에 속하며 경제공동체로 분리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거리의 물보라...행인은 괴로워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23일.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도로에 고여있는 빗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 환영식-정상회담-환영만찬

남북정상회담 D-3

실무회담서 세부 일정 확정

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첫 만남을 갖고, 남측의 공식환영식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환영 만찬이 이어지는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2면>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위해 세 차례의 전·경호·보호 관련 실무회담을 했고, 오늘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며 "27일 오전 양 정상은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이르면 시일 내 확정해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은 오는 25일 선발대를 판문점 남측 지역에 파견하

고, 우리 정부는 북측 선발대와 대표단에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 춘추관장은 "2차 회담 합의에 따라 남측 지역에서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고, 오늘 3차 회담에서는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우리 측이 24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리허설을 진행하고, 오는 25일에는 김정은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남북 합동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6일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 6명이 참가하는 최종 리허설 통해 준비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권 관장은 "오늘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고양 프레젠테이션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최진석 노장적 생각-윤련의 손 ▶18면  
KIA 전방대-한화와 설옥전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땀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